

장용학 후기소설 「夫餘에 죽다」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연구*

류 희 식**

요 약

본 논문은 장용학의 후기소설 「夫餘에 죽다」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적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장용학은 식민지가 국가의 산물임을 자각했다. 그는 일본의 천황제와 마찬가지로 당대의 박정희 군사정권 역시 국민을 지배하기 위해 역사를 조작한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래서 그는 당대의 문학운동이 '대안근대'를 추구했던 것과 달리,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설을 통해 '비국민되기'를 실험했다.

이 작품에서 장용학은 일본제국주의자와 식민지 조선인의 후손을 각각 등장시킨다. 주인공 '하디나까'는 일본인이기를 거부하고 백제인이 되고자 한다. 그는 전라도에 갔다가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 조선인의 손녀인 '미스 柳'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미스 柳'의 죽음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다른 한편 하디나까와 '반체제분자인 '나'는 우연히 경주에서 만났다가 친구가 된다. 세 명의 인물들이 서로 사랑하고 친구가 된 것은 모두 근대 주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체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장용학은 소설을 통해 신체들이 민족(국민) 주체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탈식민적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21006)

**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사

주제어: 장용학, 장용학 후기소설, 부여에 죽다, 탈식민주의, 탈주체, 비국민되기

목차

1. 서론
2. 일본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과 진단
3. 경주개발사업에 내재된 '국민 만들기' 비판
4. '비(非)국민되기'와 '탈(脫)식민주의'
5. 결론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장용학의 후기 소설 『夫餘에 죽다』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¹⁾

- 1) 식민지의 문제는 자본주의에 이르러 제국주의 국가가 자신의 외부를 정복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한다. 탈식민주의 담론의 스펙트럼이 넓어서 함부로 단언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만, 담론의 대부분은 근대국민국가의 보편성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보편성에 비추어 제국주의-식민지의 관계에서 후자의 특수성을 문제 삼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논의는 국가의 작동방식에 대하여 좀 더 근본적인 통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식민지는 오래 전, (전제군주)국가가 원시 사회체를 초코드화하여 부순 다음, 재영토화하는 순간부터 이미 발생했기 때문이다(질 들뢰즈, 펠릭스 과타리, 김재인 역, 『안티 오이디푸스』, 민음사, 2014, 293-295면 참조). 다시 말해 국가의 성립과 확장 자체가 이미 식민화인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탈식민의 상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모든 신체들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국가의 신민으로 복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보편과 특수이 차이는 사라지고, 모든 신체는 국가에 의해 보편화(식민화)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식민지의 근원인 국가를 소멸하는 것이다(국가외부). 여기서는 모든 신체가 식민지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가 사용하는 탈식민주의는 후자가 될 것이다.

장용학의 작품은 연합신문을 통해 발표된 『戲畫』(1949.11.)에서 시작하여 『何如歌行』(『현대문학』, 1987.11)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연구된 것은 전기 작품에 해당하는 『圓形的 傳説』(『사상계』, 1962.3.)까지에 한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후기 소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된 것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물론 최근에 이르러 후기 소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 드물지만 그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²⁾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장용학의 후기 소설들에서 일본고대사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폭로하는 몇 편의 글이 있다.³⁾ 수적으로는 많지 않으나, 이 글들의 창작 기간이 십 여 년(1974~1986)에 이른다는 점은 한일 간의 민족문제에 대한 그의 관심이 특별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혹자는 민족정체성이 모호했던 장용학이 후기에 이르러 스스로 억압해 왔던 식민지 체험을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일본 식민지배의 역사를 비판하고 민족정체성을 획득한 결과라

2) 개략적으로 언급된 것까지 포함하여, 장용학의 후기소설을 다룬 연구로는 김성렬, 『부부제 의식의 궤적-장용학론(2)』, 『한국문예비평연구』,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편, 1999; 이해정, 『장용학 후기 소설에 나타나는 현실비판의식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34, 한국현대문학회, 2011.8; 임미진, 『장용학 소설의 담론 연구 - 식민지체험과 언어 의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류경자, 『장용학 소설의 글쓰기 변모양상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류경자, 『장용학 소설의 역사인식 연구』, 『한국문학연구』 49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편, 2015; 홍원경, 『장용학 후기 소설에 나타난 문제의식과 형식의 양상』, 『어문론집』, 중앙어문학회, 2015; 류희식, 『장용학 소설에 나타난 삶문학적 특성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홍상인, 『장용학 후기소설 주제의식에 연계된 에세이 고찰』, 『어문론집 제70집』, 중앙어문학회, 2017.6.; 류희식, 『장용학의 후기소설에 나타난 탈국가 욕망 연구-『산방야화』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71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7.3. 정도가 있다.

3) 그 가운데 『傷痕』(『현대문학』, 1974.1), 『夫餘에 죽다』(1980.9), 『流域』(『문예중앙』, 1981.3.~1982.3), 『山房夜話』(『동서문예』, 1986.2) 네 편은 소설이며, 『허구의 나라 일본』(일월서각, 1984)은 일본인들의 논리로 그들의 허구적인 고대사를 비판한 연구서이다.

고 언급하지만,⁴⁾ 이 글들에서 일본비판이라는 표면적인 주제를 읽어내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독해가 아닐 수 없다.⁵⁾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夫餘에 죽다』는 일련의 작품들 중 작가의 의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된 것이어서 주목을 요한다. 이 작품에는 하다나까라는 일본인 주인공이 등장하여 자신의 나라인 일본 고대사의 허구성 비판은 물론, 그로 인해 만들어진 일본인들의 의식구조까지도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에 대하여 김성렬은 “속죄하는 일본인, 자신의 죄과를 아는 일본인이라는 단서가 붙”은 경우 “일인조차 용서하고 포용하려는 화해 의지”⁶⁾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서술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의 판단이 충분해 보이지도 않는다. 그 까닭은 이러한 논의들 대부분이 작가의 문학적 이념 내지 지향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연구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자유로운 접근은 작품 이해의 풍성함을 제공한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강변한 작가의 문학적 이념을 살펴보고, 최대한 이에 천착해서 작품을 분석하는 것 또한 작품에 대한 적실한 이해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간략하게나마 장용학의 문학적 지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작품에 접근하도록 하겠다.

장용학은 문학 활동을 하는 전 기간에 걸쳐 단 한 번도 재현론을 긍정하지 않았다.⁷⁾ 아울러 그는 합리성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불

4) 임미진, 「장용학 소설의 담론 연구 - 식민지체험과 언어 의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58면.

5) 김성렬, 「부부재 의식의 궤적-장용학론(2)」, 『한국문예비평연구』,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편, 1999; 홍상언, 「장용학 후기소설 주제의식에 연계된 에세이 고찰」, 『어문론집 제70집』, 중앙어문학회, 2017.6. 383-385면.

6) 김성렬, 위의 글, 228면.

7) 자연주의(재현론)에 대한 장용학의 비판은 여러 곳에서 등장한다. 그는 「감상적 발언」(『문학예술』, 1956.9.)을 포함하여 「현대문학의 양상 상(上) - 주어와 언급술」(『동아일보』, 1959.5.8), 「작가의 시각-나는 작품을 어떻게 쓰나?」(『사

합리한 것들이 버젓이 판을 치는 현기증 나는 현실을 “『합리적』이라는 관형사가 붙은 신화로 밖에 따로 해석해 볼 도리가 없”⁸⁾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문학은 이러한 현실의 질병을 진단하고 “병의 균”, 즉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⁹⁾ 이와 함께 그는 자신의 기도(企圖)가 병리적 현실의 “일상성을 과기하는 것을 전제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색 위에도 새로운 질서를 세워서 현실적으로 현 질서와 대치시켜보자는 어쩔 수 없는 그 반역성”(177면)이 그가 지향하는 문학의 새로운 점이라고 말한다. 그는 현실의 재현에 머물기보다 현실의 병리성을 진단하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세계를 문학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문학을 통해 ‘잠재적인 것’을 표현하려 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문학에 공명하는 신체들이 부조리한 현실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이었다. 그가 지향한 문학은 ‘거짓의 역량’¹⁰⁾을 현실화하는 문학이었던 것이다.

간략하지만 이와 같은 작가의 입장을 참조하여, 2장에서는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서술이 지닌 실질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일본 비판이 어떻게 당대 우리 현실 문제와 이어지는지를 검토해

상계』 62년 12월호) 등의 비문학적 글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 작품 속의 예술가-주인공이 추구하는 예술적 경향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청동기』(『세대』, 세대사, 1967.8~1968.12)의 등장인물인 기오와 철재의 대화를 들 수 있다. 또 사진에 창조적인 것이 없다는 다소 과격한 논조로 서술된 『寫眞 藝術』(『동아일보』, 1967.9.7) 역시 반재현론이라는 입장에서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 8) 장용학, 『감상적 발언』, 『문학예술』, 1956.9, 175면.
 9) “어쨌든 우리 新人들의 摸索方向은 이러한데 있다. 이 眩氣症을 嘔吐라고 바꾸어 말해도 좋겠지만 嘔吐라는 表現보다 속된 말이지만 『눈물겨웁다』든지 『嗚咽』이라든지 하는 말이 더 適合할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眩氣症을 느끼게 하는 이 現實의 『神話』를 過去의 눈으로 보아 『病』이라고 表現한다면 그 病의 菌을 찾아내려는 것이 新人의 意慾이다.” 장용학, 위의 글, 176면.
 10) 질 들뢰즈, 이정하 역, 『시네마 II: 시간 이미지』, 시각과 언어, 2005, 265면.

보겠다. 아울러 4장에서는 궁극적인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2. 일본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과 진단

『夫餘에 죽다』는 서술자인 ‘나’가 경주에서 우연히 ‘하다나까’라는 일본인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나’는 초면인 하다나까의 신랄한 한국비판에 어떻게 대처할지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그는 한국을 ‘꼬집는’ 만큼 일본도 함께 비판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문화정책과 역사인식에 대한 그의 비판이 지나치다는 생각에 ‘나’는 그에게 혹시 한국교포가 아닌지 물어본다. 그러자 그는 ‘진짜 일본인’이며, 계리사(計理士)가 자신의 직업이라고 밝힌다. 그는 자신의 이력을 다음과 같이 알려준다.

그의 아버지는 식민지 조선의 전라도에서 지서 주임을 지냈으며, 종전(8·15해방)을 맞아 조선인이 때린 몽둥이에 머리를 맞고 애꾸눈이 되어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 당시 엄마의 뱃속에 있던 그는 아버지의 제자가 되어 조선인이 열등민족이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란다. 게다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아버지가 애꾸눈이라고 놀림을 당하면, 조선에 대한 반감은 더욱 더 커졌다. 그래서 국민(초등)학교 때부터 조선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고 한다.

그처럼 태생적으로 반조선적 태도를 취했던 하다나까가 조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대학교 3학년 때였다. ‘친한파(親韓派)’라고 멀리해온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애꾸눈이 된 것은 그가 조선인들을 지나치게 학대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들은 것이다. 그는 아버지가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고 일본에

돌아오게 된 것은 어머니 덕분이었음을 짐작하게 된다. 그 후로 그는 반조선적 태도를 버리게 되는데, 이를 “애꾸눈의 呪縛에서 풀려 났”¹¹⁾이라고 말한다.

조선에 대한 자신의 기존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그는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일본고대사 공부를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의 조상은 한(漢)나라도 조선 땅의 왕족도 아닌, “達率인가 하는 백제의 臣下”(14면)였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혈관에 <요보>의 피가, 그것도 아버지의 눈을 뽑아 낸 전라도 땅의 피가 흐르고 있다”(같은 면)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후 그는 더욱더 공부에 매달렸고, 그 결과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일본 역사와 황국사관이 ‘잠꼬대’였음을 깨닫게 된다.

또, 그는 일본의 고대사가 고구려와 백제계 사람들이 도래하여 서로 권력 다툼을 벌여온 역사였으며, 당대 일본고대사 연구의 토대가 되는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이러한 사실을 말살하기 위하여 꾸며진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와 함께 임나일본부설, 광개토대왕비문의 해석 등은 “건전한 思考力을 조금만 발휘하면 누구나 스무드하게 이해되는 뻔한 사실”(16면)임에도 일본의 모든 국책 학자들은 거짓으로 꾸며내었다고 말한다. 이들과 반대로 그는 일본이라는 이름에서부터 문화 대부분까지 조선의 삼국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¹²⁾

11) 장용학, 『夫餘에 죽다』,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80.9, 14면. ※ 이후 작품을 본문에서 인용할 경우 페이지 수만 표기함.

12) 이 작품에서 장용학은 하나하나의 입을 통하여 다양한 층위에서 일본 고대사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앞서 서술된 임나일본부설이나 광개토대왕비문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신화의 해석, 천황가의 실체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일본이라는 국호에 대한 비교언어학적 접근 등 광범위하다. 이를 통해 일본의 허구적인 고대사서술에 대하여 장용학이 느껴왔던 부당성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일본 내부 연구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의 주류 역사관인 ‘기기사관’을 비판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허구의 나라 일본』(일월서각, 1984.)이다.

아울러 그는 초면의 조선인인 나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는 까닭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내가 왜 묻지도 않는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말이오, 일본인이라면 오금을 못쓰는 사람이 한국에는 하도 많아서, 일본인들이 조선을 어떻게 형편없이 보고 있는 형편없는 人種인가하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건전한 交流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오. 상대방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히죽히죽 웃으면서 손을 내밀면 뒤통이 되겠오. 計理士인 이 나에게도 히죽히죽 웃으면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럴 때면, 이것이 내가 꿈에도 그리던 내 祖上 땅의 사람들인가 싶어, 울고 싶어질 수도 있었던 말씀이오.」¹³⁾

지방사학자가 된 하다나까지는 일본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일본인이려면 오금을 못 쓰는” 한국 사람에게 자신이 알게 된 모든 사실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일본 또는 일본인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건전한 交流”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 국민은 식민지 근대를 경유한 이래 줄곧 일본에 대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1970년에는 그 정도가 심화된다. 그 중 하나는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과거 군국주의 역사를 합리화하는 일본의 태도에 따른 적대감이다. 이에 반해 다른 하나는 ‘선진국’ 일본을 동경하는 태도이다.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 이후¹⁴⁾ 남한은 박

13) 장용학, 위의 글, 17면.

14) 박정희 정권은 자신들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일본이 무상원조 3억 달러와 유상원조 2억 달러를 한국에 지원하라는 대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했다.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 이 조약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정부가 식민지 청산 문제를 국민의 합의 없이 임의로 처리하였다는 점, 그리고 일본 역시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최영호, 『현대한일관계사』, 국학자료원, 2002, 134-135면). 한편 1960년대 후반부터 1975년까지 일본으로부터 제공된 유·무상 차관은 정권의 근대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부국강병’을 앞세운

정희 정권이 끝날 때까지 경제적으로 점차 일본에 의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추종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하다나카가 보기에 현대 일본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허구적 역사를 믿는 것이다.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만든 당시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조선에서 건너갔다는 사실을 지우기 위하여 신화적인 내용을 꾸며내었으니 그 사실을 믿을 리가 없었다. 그런데 일본은 제국주의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數百名の 教授 박사 名譽교수들이 一世紀를 두고 침식을 잊어가면서”(17면) 꾸며진 허구를 역사적 사실로 만들었다. 그 작업은 바로 조선을 멸시하고 짓밟아서 열등민족을 만듦으로써 일본의 우월성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대 일본인들은 그 허구의 역사를 “마음속으로 믿으려고 들고, 또 믿게 된 것”(같은 면)이다.

하지만 하다나카가 문제라고 여기는 이것이 바로 바로 국민을 창출하는 역사의 효과이다. ‘국민’ 그 자체가 곧 이야기(서사)¹⁵⁾이기 때문에 현대 일본인들이 허구의 역사를 믿는 한, 여전히 조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다나카의 설명을 듣던 ‘나’는 일본인에게 있어 조선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지 그에게 묻는다. 그러자 그는 “조선은 일본인에게 있어서 自負心の 源泉”(20면)이라고 답한다. 조선 멸시가 없었다면 일본의 우월의식이 생겨날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짓인줄 알면서도 국가의 지성 전체가 이 거짓에 매달리는 것은 바로 그들의 “劣等意識의 소산”(21면)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인다.

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광진오, 『일본의 대일 경제정책과 한국의 입장』, 『한일관계사연구』 29집, 한일관계사학회, 2008, 268-269면.

15) 강상중, 이경덕 · 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9, 121면.

“『이상으로써 일본은 조선인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지만 蛇足으로 아까 말한 西洋콤플렉스인데, 일본이 淸나라와 싸워서 이기고 조선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게 된 다음 자신이 생겨서 한층 높이 내세운 것에 脫亞라는 것이 있오. 亞細亞를 벗어던지고 西洋을 본받아 서양처럼 되어 보자라는 거요. 國字를 로마字로 바꾸자는 주장도 나왔을 정도지만 볼품없는 東洋人들과 같은 결상에 앉아 있는 게 창피하다는 거요. 그래서 키가 작고 피부가 누런 것이 큰 고민이었지만, 그런 입을 가지고 조선을 慕華의 나라, 事大의 나라, 그러니 일본의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한 나라라고 했는데, 脫亞라는 것도 허물을 벗기고 보면 慕洋이라는 事大인데, 大姦似忠이라고, 事大도 규모가 크면 事大로 안 보이는 것까지는 좋지만, 慕洋이 慕華보다 質이 나쁜 것은 거기에는 이웃에 대한 멸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오. ……」”¹⁶⁾

그런데 인용문은 단순히 사족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적 인 전개에 대한 하나다까의 최종적인 진단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오래 전에 장용학은 하나다까의 입을 빌어 일본 제국주의가 역사적으로 보여주었던 조선멸시의 근원에는 “西洋콤플렉스” 즉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이 내재해 있음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다.

하나다까의 서술과 마찬가지로, 강상중은 일본이 서양과 구별되는 ‘동양’이라는 새로운 심상지리를 만들어 이 지역의 패자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서라고 말한다.¹⁷⁾ 일본은 서구보다 ‘열등한’ 아시아를 벗어나고자(脫亞) 하지만 스스로 ‘피부가 누런’ 근원적인 비서구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방법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아시아에서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소외’시키는 것이었다.

16) 장용학, 앞의 글, 21면. 인용문의 첫 문장은 문맥상 “조선은 일본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로 되어야 한다. 서술상 착오가 분명하다.

17) 강상중, 앞의 책, 132-133면.

일본은 스스로를 주변국보다 우월한 민족이며,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지배가 정당하다는 자기 논리를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사실을 왜곡해야 했다. 이를 위해 신화인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역사의 정전으로 삼고 실제로 만들기 위하여 아시아의 각국에 나타난 문헌자료들을 아전인수격으로 조작해 온 것이다. 이 과정은 주변국 뿐만 아니라, 자국 내부의 소수 인종까지도 오리엔탈리즘으로 타자화한 역사였다.¹⁸⁾

그런데 하다가는 서구화를 추구했던 근대 일본과 일본인이 상당히 문제적인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진단하면서, 그 결과 때문에 스스로 일본인이기를 그만 두었다고 말한다. 그가 비일본인이 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일본인들의 ‘자기망실’이다. 일본인들은 “자기 입으로 지어낸 거짓말을 열심히 믿으며 살았고, 그 믿음에서 자부심을 길”(23면)러 왔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파생된 것이 가치의식의 결여이다. 자기망실은 능동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그들은 “무엇이 반짝하면 그것이 이제까지 반짝하던 것과 반대의 것이건 뭐건 그리로 와 하고 몰려가”(같은 면)간다는 것이다.

자기망실에서 시작한 일본인들이 얻게 된 최종 결과물이 바로 철

18) 전성곤, 『내적 오리엔탈리즘 그 비판적 검토』, 소명출판, 2012. 일본이 동아시아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일본 민족의 우수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논리들의 내부 오리엔탈리즘을 다루는 이 책에 따르면, 제국주의 담론 생산자들은 동양 혹은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천손강림’의 일본민족기원론을 구성해야 했다. 그런데 그들이 정사라고 상정하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에는 일본 땅에 이미 이민족이 존재했다는 서술이 나온다. 따라서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본은 선사시대에서부터 아시아의 모든 민족의 피가 혼효되었으나, 결국은 ‘기신화’에 나오는 천황족인 ‘천손민족’에 융합되었기 때문에 모두 천손민족이라는 논리를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이민족들은 억압되거나 배제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근대 일본의 오키나와나 도호쿠 지방을 중앙권력에 포함하는 논리로 활용되었다. 특히 10장(307-344면)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저한 예측성이다. 일본인은 “천황에 대한 충성심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든 ‘大義’(23면)라고 여기므로, 일반 국민들은 오직 천황에 복종하는 예측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천황만이 사람이고 일반국민은 사람이 아니’게 되므로, 천황을 현인신(現人神)으로 만들어야 국민들이 인간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결국 그가 보기에 일본인들은 “〈日本人〉(같은 면)이기만 하면 ‘인간’이 아니어도 좋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다가는 현대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것은 “플러스면”, 즉 긍정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어서가 아니라 “남들은 이런저런 까닭으로 외면하거나 차마 못하거나 하는 것, 남들의 異國趣味나 간지리는 것, 남들에게는 萬愚節감으로 보이는”(24면) ‘마이너스면’, 즉 부정적인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人間답지 못하더라도 잘살면 그만”(같은 면)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일본인’의 이러한 태도는 바로 그들이 부식(腐蝕)된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일본을 그렇게 부식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조선 때문이다.¹⁹⁾ 그의 말에 따르면 근대 일본(인)은 스스로를 신국으로 만들기 위해 조선을 멸시했다. 그런데 신국의식은 은폐된 열등의식에 불과하다. 자신의 실제 역사가 조선보다 열등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일본은 스스로를 신국이라는 초월적 존재로 꾸며야 했으며, 그 신국의 정점에 신(神)인 천황을 세움으로써 모든 인간들은 이 초월적 존재에 예측되고 노예화되어야 했다. 스스로를

19) “『일본인을 그렇게 부식시킨 根源은 말ियो, 거슬러 올라가 그 뿌리를 캐보면 바로 〈朝鮮〉이오. 조선멸시의 神國意識이오. 조선에 대한 劣等意識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朝鮮蔑視, 일본인의 意識構造는 千數百年에 걸친 그 訓練 속에서 형성되었고, 스스로 조작한 거짓을 정말로 믿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心的 메커니즘, 그 執念이 마침내 일본인을 그렇게 腐蝕시켰던 거요.』 장용학, 앞의 글, 24면.

예속시킨 이 부식이야말로 현재의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하다나카는 일본 탈출을 감행하는데, 그 방법이 조선에 대한 공부였다. 조선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자 성취 속도가 남달랐지만, 애꾸였던 아버지에게서 배웠던 반조선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는 자기 눈으로 직접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은 “모든 것이 일본식”이어서 “조금도 新生國家 같지 않”(25면)은 한국의 모습이였다. 따라서 그가 일본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한 이유는 경제대국이 된 현재 일본의 감추어진 실상을 한국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실상은 천황제에 의해 모든 일본인들이 판단력을 상실하고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3. 경주개발사업에 내재된 ‘국민 만들기’ 비판

경주에서 버스로 두어 시간 거리에 살고 있던 ‘나’는 평소 경주를 자주 찾았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경주개발사업이 본격화 된 다음부터 발을 끊다시피 한다. 그러다 고도(古都)가 파괴되어 간다는 소식에 거의 5년 만에 경주를 찾는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불국사 무영탑에서 우연히 ‘하다나카’라는 일본인을 만난 것이다. 그는 ‘나’에게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시작으로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는 등 ‘야금야금’ 접근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하다나카의 접근에 ‘나’는 “다음에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한다면 꼭 工作員이겠다”²⁰⁾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나니 다들까 그는 ‘나’에게 맥주를 마시자고 청한다. 이에 ‘나’는 동행이 있다는 핑계로 그와 헤어지지만, 해질녘 포석정에서

20) 장용학, 위의 글, 6면.

다시 만나게 된다.

지나치게 딱딱한 일본인들과 달리, 다소 불쾌감을 주는 듯한 그의 녀석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경주 일대를 동행하게 된다. 한국에 대해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지닌 그는 경주의 문화재들은 물론 문화재를 둘러싼 국가정책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경상도 토박이면서 자주 경주를 찾았던 ‘나’보다 훨씬 깊이 있고 비판적인 안목을 보여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작품 서두에서 보여주는 통일전에 대한 그의 견해이다.

「옛날부터 있던 것을 저렇게 다시 세운 것인가요?」

「몇 년 전에 새로 세운 거요.」

「그럼 그 統一은 남북 통일을 말하는 건가요?」

「여기는 慶州요. 조선에 관해 그렇게 잘 알면서 몰라서 묻는 거요?」

(중략)

「경주는 옛날에 三國을 통일한 신라의 서울이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요?」

「그 통일이라면 좀 이상한데…….」

(중략)

「뭐가 이상하다는 거요?」

「殿이라면 記念館같은 것이 아니고, 거 뭐니까. 神主같은 것을 모신 거겠지요?」

「…….」

「그렇다면 지금의 경주는 신라의 경주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주일텐데, 거 뭐니까, 百濟의 후손들도 찾아와서 절을 하라고 저렇게 세워놓은 건가요?」²¹⁾

인용문에서 하다가까가 꼬집고 있는 것은 바로 통일전의 성격과 그 의미에 대한 것이다. 먼저 그는 통일전의 ‘전(殿)’이라는 이름에

21) 장용학, 위의 글, 5면.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통상 전통 가옥에서 ‘전’은 신이나 왕 또는 성인을 모시는 지극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건물에 붙이는 이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神主”를 모시는 곳인가 하고 물어본 것이다. 아울러 그는 통일전의 ‘통일’이 신라의 삼국통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면, 삼국의 후예임을 자칭하는 한국에서 백제의 후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다나까의 의문에는 당시 박정희 정권의 문화 정책 전반에 대한 장용학의 강한 비판이 내장되어 있다. 최광승에 따르면 집권 18년 동안 박정희의 역사관은 상당한 변화를 보여준다. 쿠데타 초기 그는 우리 역사를 ‘퇴영과 조잡과 침체의 연속사’라며 지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으나, 그러한 인식은 1960년대 후반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는 엄청난 반전을 보인다. 1970년대에 들어서 ‘주체적 민족사관’을 강조하기 때문이다.²²⁾

이 가운데, 작품에서 하다나까와 ‘나’가 대화를 이어가는 핵심공간인 통일전은 박정희 정권이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만들어 낸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그곳에는 삼국통일에 크게 기여했던 태종무열왕, 문무왕, 김유신의 영정이 있다. 이는 군인집단이었던 정권의 ‘영웅만들기’ 기획으로, ‘상무(尙武)’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통일전에 조성된 영정은 당시의 화가들이

22) 최연식, 『박정희의 ‘민족’ 창조와 동원된 국민통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28집 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2007, 46-51면; 『최광승, 『박정희의 경주 고도(慶州古都) 개발사업』, 『정신문화연구』 35권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186-190면. 최광승에 따르면, 이와 같은 변화는 무엇보다 남북한의 체제경쟁에서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 때문이었다. 남북한은 각각의 체제가 더 역사적 정통성을 지닌다는 것을 입증하고, 또 이를 통하여 각국의 국민들을 통합하기 위하여 상이한 역사 서술을 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북한은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현재의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건국되거나 활동한 고조선과 고구려 그리고 발해의 역사만을 가르쳤다. 이에 반해서 박정희 정권은 남한의 역사적 정통성을 신라역사에서 찾았으며, 특히 신라의 삼국통일을 강조함으로써 남한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하고자 한 것이다(192면).

상상을 통해 그린 영정이었으며, 건물은 ‘문화재 복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콘트리트와 시멘트로 만들었다. 설상가상으로, 그 후 경주에 복원하는 신라의 건물들은 통일전의 방식을 따랐다.²³⁾ 결국 옛 수도인 경주를 복원한다는 당시 국가의 정책은 정권의 의도에 따른 하나의 기획이었을 뿐, 역사적 실제와는 무관한 것이었다.²⁴⁾

그렇기 때문에 하다나까는 당시 조성하던 건축물들을 “歷史劇의 세트”(7면)가 아닌가 하고 말하면서, 신라시대의 “그 집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계도라도 발견되었”(같은 면)는지 꼬집어 묻는다. 아울러 그는 버려지다시피 한 포석정을 보면서, 없는 것을 영터리로 새롭게 만드느니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보전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는 가하는 견해를 보인다.

아울러 하다나까는 국가장치의 허구적 정책에 내장된 논리적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나가는 사람의 눈에 비쳐드는 것만큼은 좀 아는데, 한국에서는 封建殘滓라는 말 이상으로 일제잔재라는 말이 크게 쓰였다지만, 쓰인 흔적이 지나가는 사람의 눈에는 잘 안보인단 말이오. 하는 일이 꼭 日本式이란 말씀이오. 日帝에 그렇게 시달렸으면서 말이오. 일본에서도 배울 것이 좀 있겠는데, 마치며느리가 자기가 눈물을 흘렸던 못된 시어머니에게서 배우는 것처럼 말이오. 主體性이라고 하면서 하는 일일수록 그러니, 벌써 잊어먹은 거요?²⁵⁾(밑줄 인용자)

그는 독립 이후 박정희 정권의 정책 역시 국민을 식민지화하는

23) 최광승, 앞의 글, 203-204면.

24) 통일신라시대의 건축물로 알려진 불국사 역시도 실제 건물과 무관하게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다. 『불국사가 통일신라 건축물? 박정희 정권 ‘상상력의 산물’』, 『한겨레 신문』, 2012.12.30.

25) 장용학, 앞의 글, 8면.

제국주의적 작동과 동일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한다. 일본이 근대국가의 주체성에 입각하여 모든 문화와 역사를 허구적으로 재구성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권 역시 “주체성”을 내세우면서 허구로 역사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모든 인간을 천황의 ‘신민’으로 예속한 것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권의 최종 목적 역시 신체들을 예속시키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화랑’을 편집증적으로 강조한 것이다.²⁶⁾ 박정희 정권은 통일전보다 이전에 설립된 ‘화랑의 집’(1974년 화랑교육원으로 개칭)에서 ‘화랑정신’을 교육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주요 교육 대상은 모범적인 중·고등학교 학생이었으며 교원, 대학생, 사관생도, 공무원까지도 포함되었다.²⁷⁾ 무엇보다 정권은 삼국의 역사 중에 신라사를 정사(正史)로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허구적 서사를 양산했는데, 특히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동안 일어난 모든 군사적 활동을 화랑도 정신으로 환원시켰다.²⁸⁾ 결국 문화정책과 이에 수반된 역사 해석은 모두 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한 전략적 기획이었던 것이다.

26) 박성현에 따르면, 근대의 시작과 동시에 ‘화랑도’는 끊임없이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국가 이데올로기로 끊임없이 호출 당했다. 박정희 정권 역시 이에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들은 문교부가 발행한 『시련과 극복』(1972.9.1)이라는 책자를 중·고등학교에 배포했다. 이 책자의 2장 ‘국난을 이겨낸 겨레의 슬기’에서 삼국시대의 항목에는 화랑도는 과도하게 서술하면서도 백제에 대한 내용은 아예 빠져 있다고 한다. 박성현, 『박정희 정권의 ‘화랑도(花郎徒)’ 교육』, 『역사와 현실』 96호, 한국역사연구회, 2015.6, 53-56면 참조.

27) 박성현, 위의 글, 56면.

28) 이 당시 화랑교육원은 박정희 정권에서 화랑도 담론 생산자의 주역이었던 이선근의 『화랑도 연구』(1949)를 참고로 전체 역사를 설명하였는데 왕건의 후삼국 재통일, 서희, 강감찬, 윤관, 최영 등의 북벌개척정신은 물론, 조선시대의 이순신과 임진왜란의 의병활동 역시 화랑정신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승려의 의병활동 역시 세속오계의 호국정신으로 이의 계승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최광승, 『유신체제기 박정희 정권의 애국적 국민생산 프로젝트 - 화랑도와 화랑교육원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3,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편, 2014.6, 257면.

국가는 자신의 관점에 맞는 서사인 역사를 구성하고 집단적 기억으로 공유하게 함으로써 신체들을 국가의 리듬으로 포획시켜 주체화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잉여가치이다.²⁹⁾ 반면 이러한 기획에 부합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은 억압하거나 배제시켰다. 하다가 당시의 역사 서술이 신라사는 지나치게 추켜올리면서 백제사는 푸대접한다면서 역사 서술의 편파성을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물로 보나 역사로 보나 백제가 분명 신라보다는 훨씬 발달된 문화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사람'인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지나치게 믿고 당나라의 힘을 빌려 통일을 한 신라만을 가치 있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하다가는 '나'에게 전라도 지역을 여행한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경주고도개발사업'의 목적과 그 과정에 보이는 의도적인 지역차별 또한 날카롭게 지적한다.

「…… 거기(전라도를 일컬음-인용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문간방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깨닫고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더군요.」

「여보시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겠오.」

「왜 그렇게 두리번거리오? 여기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듣고 있지 않소!」

「아 그랬군요. 뚜껑만 꼭 덮어두고 있으면 『西部戰線 異常 없음』이군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소. 외국사람이라 해도 지방색을 풍기는 것 같은 말은 삼가는

것이 좋겠오. 우리는 손바닥만한 땅에서 살고 있는 단일민

29) 이진경, 『역사의 공간』, 휴머니스트, 2010, 53-54면.

죽이란 말이오.]

「그것은 저쪽에서 한 말 같은데, 아닌가요?」³⁰⁾

하다나까의 입을 통하여 장용학은 당시 정권이 전라도 사람들을 소외시켰던 사실을 꼬집는다. 그런데 ‘나’는 그의 말을 저지하면서 주변을 경계한다. 그는 ‘나’의 반응에 “뚜껑만 꼭 덮어두고 있으면 『西部戰線 異常없음』”이라고 비꼰다. 이에 ‘나’는 외국 사람이라 해도 지방색을 풍기는 말은 삼가라고 주의를 준다. 이와 같이 과민한 ‘나’의 반응은 당시 정권의 의도적인 지역차별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치안의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한 것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작품의 발표 시기를 고려하면 두 인물의 행동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읽어내는 것이 결코 무리한 것은 아닐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신라의 역사를 가공하여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강요하지만, 이것이 단지 정권이 상정한 ‘민족’의 역사만을 말하는 한 제국주의적 작동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³¹⁾ 백제의 후손인 전라도는 그들에 의해 차별을 받기 시작했고³²⁾, 그 후유증은 ‘지역감정’이라는 말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하다나까는 ‘한국은 단일민족이다’는 말은 권력을 장악한 쪽의 수사일 뿐임을 날카롭게 지적한다.³³⁾ 덧붙이자면 이는 근대국민국가를 만들

30) 장용학, 앞의 글, 11면.

31) 강상중, 앞의 책, 197면.

32) 호남지역의 소외는 1960년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1970년에 들어 정치적, 경제적으로 소외를 겪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은 인재등용에서 호남 인사들에 대해 차별정책을 폈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심했다. 그와 같은 분위기는 민간부문에서도 투영되어 호남출신들은 개인적 능력과 무관하게 취업과 승진의 기회를 제약 당했다. 최영태, 『5·18 민중항쟁과 김대중』, 『역사학연구』57집, 호남사학회편, 2015.2, 196-197면.

33) 이에 대해 하다나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가 단일민족이란 말을 했는데 계백이 외국의 장수였던가요? 그 당시의 民族意識이 오늘에 가까웠는지 三韓

기 위해 요구되었던 ‘단일민족’이라는 표상 자체의 한계일 것이다.

4. ‘비(非)국민되기’와 ‘탈(脫)식민주의’

제국주의 시대에 접어들어 근대국가가 작동시킨 것이 ‘혈통’ 혹은 ‘생물학적 집합체인 인종’을 내세우는 민족주의였다. 민족주의는 ‘국민’과 ‘외국인’, ‘우리’와 ‘타자’를 가르고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구축된다. 이때 타자와의 차이는 민족주의가 사유화(私有化)하고자 하는 동일성을 인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정립된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동일성이 무엇인가는 주도적인 폭력에 의해서 확립될 수밖에 없다.³⁴⁾ 따라서 동일성에 근거한 국민국가의 형성은 언제나 지배적 폭력이 강요하는 내부적 억압이 전제된다.

그런데 ‘국가’란 자명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당화한 폭력이며, 그러한 한에서 합법적인 폭력이다.³⁵⁾ 주도적인 폭력인 국민국가는 광범위한 신체들을 자기 밑으로 동원하고 조직화함으로써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생체통제권력’의 작동을 통해 개별 신체들의 능력을 조작하고 국가장치의 자기 유지를 위한 신체의 삶만을 허용한다.³⁶⁾ 들뢰즈와 가타리가 국가를 ‘포획장치’라고 부른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夫餘에 죽다』에서 하다나까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근대국민(민

時代에 가까웠는지 門外漢인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백제는 어느 쪽인가 하면 신라에게보다 十三萬 唐軍에 의해 망했던 거요.』, 장용학, 위의 글, 12면.

34) 가야노 도시히토, 김은주 역, 『국가란 무엇인가』, 산난, 2010, 199-202면 참조. 물론, 식민지의 경우 이는 제국주의의 차별화에서 반응적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도 있다.

35) 가야노 도시히토, 위의 책, 25-33면.

36)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 나남, 1997, 150-152면.

죽) 국가의 형성과정에서 한일 양국 모두에서 일어난 역사 왜곡과 그로 인한 인간의 예속이다. 천황제 국가인 일본은 신체 예속이라는 국가의 기획이 가장 철저하게 실현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경제대국이 된 걸모습만 보고 일본을 동경하였다. 그리고 근대화를 앞세운 박정희 군사정권이 단행한 유신체제는 자신들이 배웠던 일본보다 더 억압적이었다. 과거 식민지의 신체들은 제국주의의 작동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내부 식민지 주민이 되어야 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가장치의 예속화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非)국민'이 되는 것뿐이다.³⁷⁾ 『夫餘에 죽다』가 보여주고 있는 궁극적인 것이 바로 이 '비국민되기'이다. 3부에서 '나'는 일본으로 떠나는 하다나카를 전송하기 위하여 그가 묵고 있는 호텔로 간다. 그리고 또 한국에 오면 연락하라고 당부하며 헤어진다. 하지만 사흘이 지난 뒤 순경으로부터 하다나카가 '나'에게 남긴 편지를 받는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는 자신이 한국을 찾았을 때, 자기 부친이 살해했던 조선인의 손녀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그녀에게, 일본으로 돌아가 현재의 아내와 이혼한 후 조선으로 돌아와서 결혼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혼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이 뜸해지게 된다. 그 후 작심을 하고 한국에 와서 그녀를 다시 찾았으나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사산하고 산욕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일본으로 돌아가던 길에 우연히 들

37) 니시카와 나가오는 흡스와 맑스 덕분에 우리가 국가의 괴물스러움은 잘 자각하게 되었으나 국민 역시 그러하다는 인식은 놓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 역시 괴물이라고 말한다. 또 나치나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만행들은 행위주체가 모두 '국민'이기 때문에 저지른 범죄였다고 한다. 이들이 저지른 만행은 신체가 국가에 포획되어 국민이 되는 순간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나가오는 우리가 공동체로 동일화되지 않고 비국민을 관찰하는 것만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좁고 작은 가능성으로 본다. 니시카와 나가오, 윤대석 역, 『국민이라는 괴물』, 소명출판, 2005, 41-45면.

른 경주에서 ‘나’를 만났으며, ‘나’와 헤어진 후에 부산에서 페리호를 타러다가 자살을 결심한다. 그리고 ‘나’에게 편지를 남기는 것은 혹시나 일본의 가족들이 자신의 유골을 일본으로 가져갈 수도 있으니 이를 막아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디나까는 천황제에 예속되어 자기를 망실하고 ‘가치의식’조차 잃어버린 ‘일본인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백제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가 남의 나라인 한국의 문제에 과하게 열을 올린다고 말하자 “조선은 내게는 祖國”(13면)이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속사정을 전혀 몰랐음에도 그가 일본을 비판하는 것이 하도 신랄하여 “도무지 일본사람 같지 않”(22면)다고 느꼈다.

게다가 한국인인 ‘나’조차 전혀 모르는 백제에 대하여 그가 깊은 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당대 정권의 지역 차별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물론, 차별받는 전라도 사람들의 삶에 공감하는 그의 모습을 본다. 그 후 ‘나’는 그가 실제로 백제인이 되었음을 느낀다.³⁸⁾ 아울러 ‘나’에게 편지를 남겨 자신의 유골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달라는 부탁까지 한 것을 보면 “日本을 脱出”(28면)하려는 그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³⁹⁾

다른 한편, ‘미스 柳’는 하디나까의 아이를 사산하고 죽는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 그가 “강제로”(같은 면) 임신을 시킨 때문이다. 따라서 얼핏 보기에 두 사람 사이에는 실패한 사랑과 강제적 폭력만 존재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불운한 결말에 이

38) “당신은 나보다 조선에 관해 아는 것이 많으니 조선 사람 이상이군요.” 나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과연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으니, 나도 千三百年 전을 넘나들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장용학, 앞의 글, 26면.

39) 이와 정확히 대척점에 서 있는 작품들이 바로 ‘국민문학’을 통하여 ‘국민’을 생산하려 했던 일제 말기 잡지 『국민문학』의 작품들일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정선태, 『지배의 논리 경계의 사상』, 소명출판, 2017, 192-196면을 볼 것.

르고 말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의 결과이다.

우선 두 사람은 사랑을 통해 선대의 죄과(罪科)와 원한을 초극했다. 두 번째 한국을 찾았을 때 하다나까는 아버지가 근무하던 곳으로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百濟의 웃음을 연상케 하는”(27면) ‘미스 柳’를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과 함께, 그녀의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 柳’는 그를 용서하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다.

祖上이야기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의 아들인가 하는 것을 말했을 때 그녀는 내 곁에서 달아나려고 했지만, 끝내 달아나 버리지 않았고, 그녀의 희망에 따라 가족들에게는 그대로 在日二世로 알게 하고, 열흘 후 그 마을을 떠날 때 우리 둘은 결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⁴⁰⁾

여기서 ‘미스 柳’의 사랑, 즉 그녀의 ‘하다나까되기’에는 이중의 ‘배신’, 이중의 ‘탈주체화’가 존재한다. 우선 그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이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제국주의 일본의 패망을 예견했으며, 바로 그 이유로 인해 제국주의의 치안장치, 즉 순사였던 하다나까의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따라서 제국주의 순사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민족을 배신하는 것, 민족주체에서 벗어나는 행위이다.

다음으로, 그녀는 가족들에게 그를 재일 한국인 2세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정체를 감춘다. 그리고 그와 결혼을 약속한다. 따라서 할아버지를 살해한 자의 아들과 결혼을 약속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배신이다.⁴¹⁾ 다음 인용문은 그녀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40) 장용학, 앞의 글, 27면.

41) 그녀와 마찬가지로, 하다나까 역시 반조선주의자였던 아버지의 가치관을 벗어

나는 나를 책망하기보다 미스 柳를 더 원망했습니다. 왜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을까. 그 성품으로 보아自尊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나를 돈 많은 제일교포로 알고 있어서 한동안 그녀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다음에는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⁴²⁾

인용문의 행간에서 임신한 그녀가 주변인들에게서 추문의 대상이 되었을 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게다가 그 상대가 돈 많은 제일교포였다는 점은 그녀를 더욱 더 비참한 웃음거리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끝까지 아이를 낙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하다나까는 그녀의 사랑을 확신한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은 ‘미스 柳’의 ‘비국민되기’와 ‘하다나까되기’가, 그리고 하다나까의 ‘미스 柳되기’와 ‘비일본인되기’, ‘백제인되기’가 놓여 있다.

이러한 되기(생성)와 더불어~” ‘나’와 하다나까 사이의 ‘친구되기’가 있다. 작중 서사를 참고하면 두 사람이 함께 한 시간은 3일에 불과하다. 그 중 하루는 ‘黃山屋’이라는 술집에서였다. ‘나’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을 뿐 그를 알지는 못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나’의 말을 엿듣게 된 하다나까는 “도청하고 있는 내가 어디서 누가 도청하고 있지 않나 하고”(8면) 걱정을 할 정도였다고 밝힌다. ‘나’는 해직당한 ‘반체제분자’였기 때문에 취중에 정치적인 말을 쏟아내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다나까가 우연히 만난 ‘나’에게 집요하게 다가왔던 것은 바로 ‘나’가 “愛國家는 아니라는 것을”(6면), 더 나아가 ‘비국민’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경주에서 함께 보낸 시간은 고작 이틀이었다. 하지만

났다든 점, 그리고 일본에 있는 아내와 이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주체이기를 거부한다.

42) 장용학, 위의 글, 28면.

그 짧은 시간 동안 둘은 서로 공명한다. 이미 서술했듯이, 처음 그가 '나'에게 접근했을 때 '나'는 그가 공작원(간첩) 같다는 인상을 받고 그를 피했다. 그 후 어쩔 수 없이 동행을 하면서 '나'는 일본에 비판적인 그에게서 일본인 같지 않다고 막연히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의 진심을 알게 된다.

그 후 하다나카는 전라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몸에 “조선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설레임 같은 것을 느꼈”(25면)다고 말하면서, 정권에 의해 자행된 지역차별을 문제시한다. 그러면서 그가 『낙화암』이라는 노래를 직접 부르기도 하고, 식민지 시기부터 “쌀 수탈의 음지로 밖에 대접받지 못”한 “백제 땅”(26면)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보이는 것을 보고 '나'는 “조선 사람 이상”(같은 면)이라고 평가한다. '나'가 그의 모습을 보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한 것은 하다나카가 백제 사람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공명한 것이다.

작품의 결말에서 경찰이 '나'에게 하다나카의 유서를 전해주면서 잘 아는 사람인가를 물었을 때 '나'는 “오랜 친구”(29면)였다고 답한다. 그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유서를 남겼다는 사실과, 경찰에게 한 '나'의 대답은 두 사람의 '친구되기', 다시 말해 '나'의 '하다나카되기'와 하다나카의 “나되기”를 보여준다. 이 작품은 다음과 같이 끝난다.

순경과 함께 夫餘로 가면서 나는 그를 朝鮮의 흙이 되게 한 것은 사랑이었을까, 백제였을까 하는 의문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그 日本人은 정말 千三百年前을 산 것인지도 모른다고 했다.⁴³⁾

그의 죽음으로 인해 '나'의 내면에 떠오른 불확정적인 의문에 대한

43) 장용학, 앞의 글, 29면.

답은 배타택일적인 것이 아니다. 둘 모두이기 때문이다. ‘미스 柳’의 죽음을 확인한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혼자 살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죽어가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두 사람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불운한 사랑을 긍정하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는 사랑과 백제, 근대 국민국가의 역사적 표상을 가로지르는 되기(생성)가 실재한다.

따라서 서론에서 언급한 김성렬의 결론은 여러모로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장용학은 속죄하는 일본인, 자신의 죄과를 아는 타국가(민족)인을 용서하고 포용하겠다는 화해의 의지를 내비친 것이 아니다. 이와 달리 그는 국민국가의 연속에서 벗어나는 삶이 가능함을 소설로 제시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한에서 하다나카의 죽음은 ‘대속’이라기보다 신체가 가진 탈주체화하는 잠재적 능력을 문학적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제국주의 근대는 분명 서구의 오리엔탈리즘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리고 오리엔탈리즘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식민 지배자와 식민지인의 상호 변형을 의미하는 ‘혼성’ 또는 ‘이산’ 개념이다.⁴⁴⁾ 그런데 이러한 혼종성의 개념을 근대국민국가의 동일성에 근거한 차이, 즉 ‘동일한 것’이었던 개별 종들의 뒤섞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⁴⁵⁾ 반대로 이 혼종성은 애초에 이질적인 것을 초코드화한 국가가 만들어낸 ‘종적 동일성’이라는 표상을 벗어나는 것, ‘차이 자체의 긍정’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장용학의 『夫餘에 죽다』에 나타

44) 릴라 간디, 이영욱 역,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2000, 161-167면 참조.

45) 동일성에 근거한 혼종적 주체의 극한이 바로 네그리가 말하는 ‘잡종적 주체’일 것이다. 잡종적 주체는 모든 호출에도 응답하는 데, 그는 어떤 정체성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정체성에 속한다. 이는 다면화된 연속의 다른이름에 불과하다.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윤수중 역, 『제국』, 이학사, 427-429면 참조.

난 다양한 ‘되기’는 바로 이러한 국가 혹은 종적 동일성을 초극하는 ‘혼성-되기’ 일 것이다.

5. 결론

이상으로 장용학의 후기 소설 『夫餘에 죽다』에 나타난 탈오리엔탈리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작품에서 장용학은 하다나까라는 일본인 인물을 등장시켜 그들 스스로 허구의 일본 역사에서 벗어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작품의 표면에 등장하는 강력한 반일본적인 내용은 단순히 일본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일본이 허구의 역사를 만들게 된 이유가 서구에 대한 열등감과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 때문이었으며, 일본의 조선멸시는 역설적으로 일본인의 자기 ‘부식(腐蝕)’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일본은 천황제 국가가 되었으나 일본인들은 인간이 아니라 ‘신민’으로 예측된 것이 바로 그 결과이다. 하다나까는 국민들이 허구의 역사를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한, 그들이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일본인’이 된다.

장용학은 이러한 인물을 ‘나’와 동행시킴으로써 경주의 문화재 복원이 정권의 권력 연장을 위한 전략적 기획이라는 것을 폭로한다. 그들이 정당화한 역사는 실제 역사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백제사와 고려사를 배제한 허구의 창작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통일전’이다. 하다나까가 당대 한국을 보고 일본보다 더 일본적이라고 말한 것은 당시 유신정권이 천황제보다 더 가혹하게 신체들을 예측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그가 일본의 실상을 보여준 것은 경제발전만을 보고 정치적인 예측을 보지 못하는 한국

인들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작품 마지막에서 하다나카가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그와 미스 柳의 사랑은 좌절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의 죽음은 두 사람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음을 반증해 준다. 따라서 죽음으로써 지속되는 두 사람의 사랑과, 일본인이기를 거부했던 그를 ‘나’가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 근대적 배치가 만들어낸 주체화를 벗어나는 것이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반을 경과하면서 우리 문학은 민족 문학 운동을 전개했다. 이 시기에 이르러 민족문학은 ‘시민문학론’의 부르주아적 측면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기층 민중을 운동의 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진보적 성격을 분명히 했다. 이는 문학사적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서 1980년대 말까지 분화 및 가속된 대중운동과 마찬가지로, 문학운동은 여전히 국민국가의 틀 내부에 갇혀 있었다. 따라서 포획장치인 국가의 외부를 사유할 수는 없었다.

조선을 식민화하고 수탈한 것은 분명히 일본제국주의의 욕망과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적 표상에 따른 것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조선이 독립했으나, 두 민족 사이에는 여전히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 게다가 우리가 여전히 ‘보편’ 또는 ‘정상’의 근대국가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않는 한 식민주의적 표상을 벗어날 방법은 없다. 문제는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포획장치인 국가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반복가능하며, 모든 신체는 결코 그 예속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夫餘에 죽다』를 통하여 장용학은 제국주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생겨난 민족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민(민족)국가’가 원인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아울러 ‘근대화’ 정책을 내세운 군사 정권의 작동방식은 물론이거니와, 경제대국이 된 일본을 동경하면서

자본주의 욕망에 공명하는 것 역시 새로운 예속(식민화)임을 밝히고 있다.

결국 지속되는 식민지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국민국가’의 예속을 벗어나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작품을 통해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작품을 통해 그가 보여준 역사적 현실에 대한 진단과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설적 실험(천)은 양가성에 머물러 있었던 기존의 ‘탈식민주의’로는 잘 파악되지 않는다. 그는 신체를 포획하고 노예화하는 것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근대국민국가의 심연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장용학, 『夫餘에 죽다』,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80.9,
 _____, 『감상적 발언』, 『문학예술』, 1956.9.
 _____, 『현대문학의 양상 상(上) - 주어와 연금술』, 『동아일보』, 1959.5.8,
 _____, 『작가의 시각-나는 작품을 어떻게 쓰나?』, 『사상계』 62년 12월호.
 _____, 『청동기』, 『세대』, 세대사, 1967.8~1968.12
 _____, 『寫眞 藝術』, 『동아일보』, 1967.9.7.

2. 참고논저

- 곽진오, 『일본의 대일 경제정책과 한국의 입장』, 『한일관계사연구』 29집, 한일
 관계사학회, 2008, 268-269면.
 김성렬, 『부부재 의식의 궤적-장용학론(2)』, 『한국문예비평연구』, 한국현대문
 예비평학회편, 1999, 228면.
 류경자, 『장용학 소설의 글쓰기 변모양상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_____, 『장용학 소설의 역사인식 연구』, 『한국문학연구』 49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편, 2015.
 류희식, 『장용학 소설에 나타난 삶문학적 특성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15.8.
 _____, 『장용학의 후기소설에 나타난 탈국가 욕망 연구-『산방야화』를 중심으
 로』, 『어문론총 71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7.3.
 이해정, 『장용학 후기 소설에 나타나는 현실비판의식 고찰』, 『한국현대문학연
 구』 34, 한국현대문학학회, 2011.8
 임미진, 『장용학 소설의 담론 연구 - 식민지체험과 언어 의식을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58면
 최광승, 『박정희의 경주고도(慶州古都) 개발사업』, 『정신문화연구』35권1호, 한
 국학중앙연구원, 2012, 186-190면.
 _____, 『유신체제가 박정희 정권의 애국적 국민생산 프로젝트 - 화랑도와 화

- 랑교육원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3,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편, 2014.6, 257면.
- 최연식, 『박정희의 ‘민족’ 창조와 동원된 국민통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28집 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2007, 46-51면
- 최영태, 『5·18 민중항쟁과 김대중』, 『역사학연구』57집, 호남사학회편, 2015.2, 196-197면.
- 홍상언, 『장용학 후기소설 주제의식에 연계된 에세이 고찰』, 『어문론집 제70집』, 중앙어문학회, 2017.6. 383-385면.
- 홍원경, 『장용학 후기 소설에 나타난 문제의식과 형식의 양상』, 『어문론집』, 중앙어문학회, 2015.
- 강상중, 이경덕·임성모 역,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1999, 121면.
- 이진경, 『역사의 공간』, 휴머니스트, 2010, 53-54면.
- 전성곤, 『내적 오리엔탈리즘 그 비판적 검토』, 소명출판, 2012, 307-344면.
- 정선태, 『지배의 논리 경계의 사상』, 소명출판, 2017, 192-196면.
- 최영호, 『현대한일관계사』, 국학자료원, 2002, 134-135면.
- 가야노 도시히토, 김은주 역, 『국가란 무엇인가』, 산눈, 2010, 25-33면.
- 니시카와 나가오, 윤대석 역, 『국민이라는 괴물』, 소명출판, 2005, 41-45면.
-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윤수중 역, 『제국』, 이학사, 427-429면
- 질 들뢰즈, 이정하 역, 『시네마 II: 시간 이미지』, 시각과 언어, 2005, 265면.
- 질 들뢰즈, 펠릭스 과타리, 김재인 역, 『안티 오이디푸스』, 민음사, 2014, 293-295면
-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 나남, 1997, 150-152면.



<Abstract>

A Study on the Postcolonial Perspectives of Jang Yong-hak's *Dying in Buyeo*

Ryu, Hee-Sik

This paper examines a post-national desire in Jang Yong Hak's later novel, *Dying in Buyeo*. Jang Yong Hak acknowledged that colony was the product of nation. He realized that, just as Japanese emperor system did, Park Chung Hee military regime also distorted history to rule people. That is why he experimented "becoming non-nationals" through his novel. While his contemporary writers aimed at "alternative modern," Jang tried to escape from nation.

In *Dying in Buyeo*, Jang presents the descendants of Japanese imperialists and Koreans as major characters. Hadanaka, the protagonist of this novel, refuses to be Japanese; rather, he wants to belong to Baek-je. He visits Jeonlado and falls in love with Miss Yu, whose father was beaten and killed by Hadanaka's father. Their tragic love, however, cannot continue because of Miss Yu's death. On the other hand, Hadanaka and I, a dissident, become friends when encountering in Geyongju. These uncommon relationships among the three characters could be realized since they 'become new bodies' beyond modern subjects. Jang Yong Hak demonstrates that a genuine post-national life could be feasible when a body liberates itself from a national subject.

Key words: Jang Yong-hak, later novels of Jang Yong-hak, *Dying in Buyeo*, postcolonialism, postsubject, 'becoming no nation'

투 고 일: 2018년 1월 20일 심 사 일: 2018년 1월 30일-3월 7일

게재확정일: 2018년 3월 9일 수정마감일: 2018년 3월 18일